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로렌스 한인업체들 가스폭발 후유증 여전

가든하우스 여전히 공사 중 문닫아
신신식품 보험 보상금 한푼 못받아
사고 1년여 후 정상화 아직 먼 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로렌스, 앤도버 등 가스 폭발 사고 지역 일부 한인업체들은 아직도 채 아물지 못한 후유증으로 시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3일 로렌스 인근 지역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거의 1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지역 사업체들은 70%만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로렌스, 앤도버 등 3개 타운 시장들이 나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보상을 촉구할 정도다.

이 지역의 한인업체들 중 가든 하우스는 여전히 문을 닫은 채 가스 보수 공사가 모두 마무리 되길 기다리고 있으며 신신식품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신신식품은 H마트의 보스톤 입성 이후 살아남은 두 토종 한인 식품점 중의 하나다. 비교적 북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로컬 손님을 상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차 매출이 증가세에 있었다. 가스 폭발은 이 같은 성장세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지난해 9월 매리맥 강변 주변의타운 로렌스, 앤도버, 노스 앤도버 3개 지역의 가스가 연쇄 폭발적으로 폭발했다. 사진은 로렌스에서 가스 배관 공사로 인해 도로를 폐쇄한 모습

로렌스 시당국의 전기 및 가스 차단으로 인해 8일간의 영업중단에 불과했지만 식품점에 있는 모든 냉동, 냉장 식품을 폐기 처분해야 했기에 물건을 완전히 채워 넣기까지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일부 공급업체들은 먼저 물품을 공급해 주고 추후 돈을 수령기로 사정을 봐주었지만 보상금

수령이 1년여가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안혜영 사장은 "보상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요청을 고맙게도 받아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에 돈을 못 갚으니 이제는 해결 좀 해달라고 요청한다" 고 말하고 "이 점이 아주 고통스럽다" 고 밝혔다

▶▶6면으로 계속

이민국 불법이민자 14일부터 대대적 체포단속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이민단속국이 미 전국적인 불법이민자 체포작전을 이번주 일요일인 14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현직 국토부관계자들이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으로 강력하게 추진됐던 이 체포작전은 그동안 이민국 내부 직원들의 반발 등으로 연기 됐으며 독립기념일 전후에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기도 했었다.

이번 이민자 체포단속은 이민단속국(ICE)가 수일에 걸쳐 실시하며 부수적인 추방도 포함된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번 단속의 대상이 아닌 이민자들도 현장에서 발견되는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단속국은 가족구성원이 체포될 경우 가족 전체를 텍사스와 펜실베이니아 소재 센터로 이송 수감할 계획이지만 만약 시설이 부족할 경우 호텔에 감금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이민 체포단속에서는 2천명의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속장소는 최소 미국내 10개 대도시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hsb@bostonkorea.com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ICE IACE TRAVEL
상업시간 연장안내

OPEN 9AM CLOSE 9PM

866.619.4223 월요일-금요일 영외
평일출발 당일출발

비수기 출발
인천행직항공사권
\$1319~ (타워)

일본 에어텔, 레일패스
미서부 177기후어
고국방문 패키지
일본아시아 여행기후어

Newstar JB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21 CENTURY 21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CENTURY 21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보스톤 한미노인회는 메인 부스베이 항(Boothbay Harbor)에 위치한 캐비지 아일랜드를 방문해 해산물을 구워먹는 캐비지 아일랜드 클램베이크 나들이를 6월 마지막 주에 다녀왔다

한미노인회 캐비지 아일랜드 클램베이크 나들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노인회는 메인 부스베이 항(Boothbay Harbor)에 위치한 캐비지 아일랜드를 방문해 해산물을 구워먹는 캐비지 아일랜드 클램베이크 나들이를 6월 마지막 주에 다녀왔다. 북부 보스톤교회에서 출발해 버스로 세 시간 가는 긴 여행이었지만 한미노인회에서 마련한 간단한 음식을 나누며 지루할 틈 없이 도착했다. 다시 45분동안 배니 엘리프호트를 타고 캐비지 아일랜드에 도착했다. 선장은 부스베이 하버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

다. 점심식사 장소에는 커다란 클램베이크(Clambakes) 솥이 일행을 기다렸다. 바닷물과 미역, 톳 등을 넣고 찌낸 랍스터, 조개, 옥수수, 감자, 계란 등 다양한 음식을 즐겼다. 노인 회원들은 서로 사진도 찍고 즐겼으며 점심 후에는 “내년에도 다시 오고 싶다”고 말하는 회원이 많았다. 또 한 회원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한미노인회 임원진들 및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내가 한미노인회 회원이어서 행복하다”고 밝혔다.

메인의 유명 관광지인 캐비지 아일랜드 클램베이크는 ‘메인의 클래식’로 불릴만큼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상품이다. 1시간의 보트여행과 클램베이크(생선차우더, 랍스터 2마리, 조개, 옥수수, 감자, 계란 그리고 블루베리 케익 등이 포함된 식사)로 구성되어 있다. 평일에는 하루 한차례, 토요일에는 2차례 배가 운행한다. 가격, 예약 등 자세한 것은 www.cabbageislandclambak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2019년 국궁 및 양궁 시연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야외 활동을 제공해온 한미청소년프로그램(이하 KAYP)은 뉴햄프셔 숲속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활 및 양궁을 쏘아 볼 수 있는 시연모임을 개최한다.

KAYP는 뉴햄프셔 어번(Auburn)에 마련된 국궁 및 양궁 연습장(캠프 장소)에서 7월 13일 토요일 오전 및 오후 2차례, 7월 14일 오전 1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번 시범 모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궁은 초등학교생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양궁연습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번 행사에 간단한 스낵과 음료도 준비된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 및 가족들은 반드시 진태원 진행자(603-205-6679 나 Taewon.Jin@Gmail.com)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 캠프 장소에는 가족들과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야외 장소도 있으므로 이를 준비해와도 좋다.

7월13일 토 9:00-12:00, 2:00-5:00

7월14일 일 9:00-12:00

장소: 5% Hooksett Rd, Auburn NH 03032

603-205-6679 나 이메일로 Taewon.Jin@Gmail.com

등록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총영사관 모의 재외선거로 내년 총선 대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총영사관이 내년 4월 실시될 한국 총선 재외국민선거를 대비한 모의 재외선거를 8일 가졌다. 재외 투표소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방문한 선관위 출장단 관계자들이 모의 선거를 지켜보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 조언했다.

선관위 출장단은 김대훈 인사과장, 선거 1과 송중기 사무관, 무안군 선관위 최치운 주무관, 법무부 이화주 주무관, 외교부 외교행정관 운영자 주무관까지 5명으로 구성됐다.

선관위 출장단은 선관위에서 직접 관리 담당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지역을 주로 돌며 사전 점검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스톤을 비롯 오타와 그리고 토론토를 방문한 후 귀국한다. 선관위 직원 20여명은 6월 1일자로 이미 파견되어 해당 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출장단은 9일 남궁연 전 보스톤 재외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미자 당시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김숙경 위원(국민의당 정당추천)과 장우석 한인회장 및 서영애 부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올스턴 소재 한국가든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총영사관은 4월 재외국민선거를 위



뉴튼에 위치한 총영사관에서 8일 열린 모의 재외선거에서 김용현 총영사가 투표 등록 확인 및 투표용지를 받고 있는 모습



선관위 출장단이 9일 올스턴 소재 한국가든에서 장우석 한인회장과 서영애 부회장, 남궁연 전 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해 공관이 지명하는 3인의 선관위원과 교섭단체 추천 위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곧 구 bostonkorean@hotmail.com 성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가 애머스트 한국학교를 방문 상호협력력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서천 회장, 김두성 본부장, 박철 교장, 허훈 한국학교운영회 회장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 애머스트 한국학교 방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 임원단들이 애머스트에 위치한 애머스트 한국학교를 방문해 박철 교장 및 한국운영회 회장과 환담했다.

매사추세츠 서부 한인회 서천 회장과 김두성 본부장은 5월 한국학교를 찾아가 학교 전체를 둘러보고 발전방향에 대해 장시간 토론했다. 이 자리에는 학교측에서 박철 교장과 운영회 허훈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박철 교장은 한국학교 연혁과 커리큘럼 등에 대해 설명했다. 2014년에 비영리 단체로 설립된 이 학교에는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유아반부터 초등 전 과정과 중등 2-3학년(11학년)까지 편성되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예절 등 한국의 우수성을 배우고 있다.

현재, 약 15명의 교사들이 답임을 맡아 무급 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는 20개가 넘는 교실과 실내 GYM(운동장)까지 갖추고 있다.

서천 회장은 “오래된 성(Castle) 처럼 운치 있고 아름다운 학교였다.” 며 “먼 이역의 땅에서 자라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예를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미래이자 희망이란 생각이 들었다” 고 밝혔다.

서 회장은 또 “한인회의 출범 취지도 설명하며 두 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July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8 - 7/26	Mon-Fri
Chemistry(Preview)	1:00 PM - 3:00 PM	7/8 - 7/29	Mon/Wed/Fri
Biology(Preview)	4:00 PM - 6:00 PM	7/8 - 7/29	Mon/Wed/Fri

August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5 - 8/23	Mon-Fri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1:00 PM - 3:00 PM 4:00 PM - 6:00 PM	8/5 - 8/23	Mon/Wed/Fri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불법이민자 건강보험 법안 승인...미국내 최초

25세 이하 불법이민자들에게 메디케이드 제공 현재 18세이하 무료 건강보험 확대 적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캘리포니아주가 미국내 처음으로 불법 이민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9일 서명했다고 미 공영라디오(NPR)가 보도했다.

그동안 매사추세츠 등 체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민자에게도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가 있었지만, 대부분 응급상황이나 임신 등 특정 진료 항목으로만 제한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25세 이하 저소득 이민자에게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캘리포니아는 지금까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법안으로 19~25세 젊은 층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 관리들은 이 법

안으로 약 9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주 정부 예산은 9천800만 달러(1천158억 원) 상당으로 재원은 이미 예산 편성에 반영돼 있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점차 높여 나갈 것이라며 향후 자원 마련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률이 의료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의료시설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이 기본권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결과적으로 민영 보험을 이용하는 중산층 가구에서 강제로 거둬들이는 세금을 불법 이민자를 위한 건강보험에 쏟아 붓는 셈이라며 이 법률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합법적인 거주자에게 과세하고 불법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9일 서명했다고 미 공영라디오(NPR)가 보도했다

다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환영받고 있다. 지난 3월 중립적인 성향의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3분의 2가 불법으로 거주하는 젊은 청년 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 제공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는 미국내에서 가장 이민자가 많은 주이며 이민자의 14%가 불법 이민자인 것

로 추정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어 지난달 이 법안이 차례로 통과됐다.

매사추세츠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제한적인 건강보험 Masshealth limited와 Health Safety net을 제공해 응급환자, 임신출산 등 진료를 가능케 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산악회 정기 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7월 20일 토요일 뉴햄프셔에 위치한 마운틴 탐, 필드, 아발론 루프(Mt.Tom,Field, Avalon loop)로 정기산행을 떠난다.

마운틴 탐, 필드, 아발론 루프는 초보부터 전문 산행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가 있다. 마운틴 탐, 필드, 아발론 루프는 A조(왕복 6.6마일), 마운틴 필드, 아발론 루프는 B조(왕복 5.6마일), 아발론 루프는 C조(왕복 3.6마일)이다. 난이도는 3~4까지 보통이다. 참가비는 \$20이며 참가신청 마감은 7월 18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등산 당일 집결은 뉴햄프셔 샬럼 93번 2번출구 파크앤라이드에는 오전 7시 15분까지 해야 한다.

준비물은 등산복, 등산화, 모자, 배낭, 종식, 등산용 스틱, 물 1.5리터 등이다. 정상에서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기온 변화가 심하니 항상 여름에도 장갑과 바람막이 모자 달린 자켓을 준비해야 한다.

문의 및 참가신청은 617-780-9588 (들꽃향기)으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Event 1

2+1
화애락 본 구입시
15포 추가증정

화애락진은 제외

BEST DEAL

Event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Mild 100g 증정

BEST DEAL

\$80 상당

전화주문 서비스
FedEx로 주문시 다음날 관해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다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올스톤 버스 전용차선 주 7일 24시간 운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스톤 브라이언 애비뉴 (Brighton Avenue)에 버스전용차선이 6월 말부터 설치돼 항구적으로 운영된다.

브라이언 애비뉴 버스전용차선은 케임브리지 스트리트와 만나는 지점부터 시작해 88슈퍼 인근 커먼웰스에 비뉴를 만나는 지점까지 이어진다.



올스톤 브라이언 애비뉴(Brighton Avenue)에 버스전용차선이 6월 말부터 설치돼 항구적으로 운영된다

버스 전용차선은 버스, 스쿨버스 그리고 자전거만이 사용 가능하다.

보스톤 시는 지난달 11일 브라이언 애비뉴 전용차선을 6월 말부터 주 7일 24시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이언 애비뉴에는 57번 및 66번 버스가 운행된다. 보스톤 시는 MBTA와 공동으로 버스전용차선 운영을 단속할 계획이다. 당초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전용차선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풀타임으로 변경됐다.

보스톤 시는 2018년 로슬린데일의 워싱턴 스트리트에 버스전용차선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왔다. 이 결과 가장 혼잡한 시간대인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1천 100대의 버스의 진행 시간이 약 20-25%가량 줄어들었다. 또한 버스 승객과 자전거 이용자의 94%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보스톤 시는 브라이언 애비뉴 이외에도 찰스타운의 브리지에서부터 시작해 헤이마켓 전철역까지 이어지는 노스 워싱턴 스트리트(N Washington St)에 버스전용차선을 풀 타임으로 운영한다.

보스톤 시 외 케임브리지, 알링턴



브라이언 애비뉴에 설치된 24시간 버스전용차선. 경찰은 본격적으로 전용차선 단속을 시작했으며 전용차선에 들어가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의 매스 애비뉴, 에버렛, 서머빌 등지에서도 버스전용차선을 운영 중이다. 주정부는 버스 전용차선이 저비용으로 러시아워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그동안 보스톤에도 권장해왔다.

보스톤은 러시아워 교통혼잡이 미국내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로 기록될 만큼 출퇴근 교통혼잡이 극심하며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숙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희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션원 회원사 | 세한원 회원사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9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질문 삽입 행정명령을 고려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지난해 가스폭발 이후 문을 닫은 가든하우스. 현재도 여전히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시민권 질문 삽입 행정명령

센서스 설문지 이미 인쇄 시작
분리된 추가 설문지 인쇄 고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대법원의 시민권 질문 삽입 불가 판결 이후 시민권 질문을 삭제한 채 센서스 설문지 인쇄가 들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어깃장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센서스 설문지 시민권 질문 삽입 행정명령을 빠르면 12일 서명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명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또는 행정명령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될지 불분명하지만 시민권 질문 삽입에 관련된 대통령의 행정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즈가든에서 센서스와 시민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 이라고 트윗을

날렸다. 이에 앞서 온라인 언론 약시오스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변호사들이 행정명령을 비롯한 다양한 법적 선택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었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센서스 설문지와는 별도로 추가 질문 문항을 인쇄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같은 트럼프의 고집은 현재 법무부에 엄청난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이번 주 초 법무부는 시민권 질문과 관련된 고위 변호사 일부가 행정부의 태도가 갑작스레 변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분노를 표시하면서 팀 교체를 발표기도 했었다.

시민권 질문 삽입 관련 보수 진보의 대결은 대법원의 판결로 종착점에 다다른 듯 했지만 보수 의원들 그룹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시민권 질문삽입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변조할 것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hsb@bostonkorea.com

로렌스 지역 한인업체들 가스폭발 후유증 여전

▶▶1면에 이어서

그럼에도 보상금 피해 보상 신청은 비교적 수월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시정부에서 청구하는 것을 자세히 안내해주고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콜롬비아 가스 본사의 보험회사와 대화 및 서류 준비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변호사가 요청하는 서류만을 준비해서 주면 됐다. 물론 서류 정리 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변호사의 권유로 아는 사람을 고용해 처리도 록 했다.

안혜영 사장은 “이번 사고가 시 전체에 영향을 미쳤기에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단일 사고였다면 이미 망했을 것”이라며 “사고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돈은 못받았지만 정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신신식품과는 달리 1차 보상금을 받기는 했지만 사고

가 발생한 1년여가 지나도록 영업을 하지 못하는 곳이 가든하우스다.

9월 폭발사고 이후 복구에 약 3개월이 걸렸다. 12월께 문을 열고 정상 영업을 하는가 했지만 채 2달이 못 돼 문제가 다시 생겨 재공사에 들어갔다. 3주 걸릴 것이라던 공사는 3달이 넘어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빌딩의 전기시설이 노후, 20년마다 바뀌는 소방코드에 맞지 않다는 것이 소방점검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건물주와 콜롬비아 가스 측이 비용 부담 공방을 벌이면서 기간이 늘어졌다.

김창진 사장은 “양측이 합의가 돼서 이제 곧 공사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한 달 안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3-4주에 끝낼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차 보상금을 지급받아 급한 불을 껐다는 점이다.

그러나 7만여불의 보상으로는 밀린 돈 갚는데도 여의치 못했다. 더구나 가장 큰 고통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쉬고 싶어 쉬는 것이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 같다” 고 김 사장은 밝혔다.

물론 한인 업체 중 가스폭발로 크게 피해가 없었던 곳도 있다. 신신 옆에 위치한 이가그릴은 가스 및 전기 폐쇄로 폐기 처분한 냉장 및 냉동 식재료 8일간의 영업 손실을 청구해 청구금액의 약 70%정도를 보상 받았다. “저희보다 더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많이 있었기에 받아들이겠느냐는 물음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고 이재봉 사장은 말했다.

이재봉 사장은 “피해보신 분들께 민망하지만 가스 폭발 이후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았기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다” 며 솔직하게 “그저 손해만 본 것이 아니라” 고 털어냈다.

editor@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호텔의 벨맨인 샘 기세먼(Sam Geesaman)씨가 6월 25일 오전 5시 호텔 베란다에서 찍은 사진 (SAM GEESAMAN/OMNI MOUNT WASHINGTON RESORT)



올해 첫 웨스트나일 모기 발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올해 들어 첫 웨스트나일바이러스(WNV)모기가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주보건부실험실은 이번에 발견된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모기가 독립기념일 하루 전인 7월 3일 보스톤 시에서 채집된 모기 중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사람이 감염된 케이스는 보고되지 않았다.

보건부는 이번 첫 발견사례에도 불구하고 모기 경보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각별한 주의가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보건부 캐서린 브라운 박사는 “보통 6월 말이나 7월 초에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모기나, 동부 말뇌염(EEE) 모기 등이 발견된다”고 말하고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피크에 달하는 8월”이라고 덧붙였다.

웨스트나일바이러스는 모기가 물어 사람에게 감염되며 지난해에는 매사추세츠에서 사상최고인 총 48명이 감염됐다. 웨스트나일 감염은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다. 발병된 경우 감기 증상과 유사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며 드물지만 때론 심각한 위험상태로 연결되기도 한다.

hsb@bostonkorea.com

IMF 탄생시킨 마운트 워싱턴 호텔 곰도 방문

뛰어난 경관, 넓은 잔디밭 등 다양한 부대시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 회의가 열렸던 호텔
금본위제 달러기축통화 공인된 역사적 장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금본위제, 브레튼우즈 협정, IMF, 세계은행 익숙한 단어들이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이 체결됐던 장소 뉴햄프셔 브레튼우즈에 위치한 옴니마운트워싱턴(Omni Mount Washington) 호텔에 지난달 말 곰이 방문해 화제다.

이 곰은 6월 25일 새벽 5시경 호텔의 동쪽 베란다에 나타나 리조트의 아름다운 아침 풍경을 감상한 후 조용히 사라졌다. 사진은 이 호텔의 벨맨인 샘 기세먼(Sam Geesaman)씨가 발견해 찍은 것이다.

호텔의 마케팅 디렉터인 크레이클레머 씨는 보스톤글로벌와의 통화에서

“사슴, 무스, 여우, 독수리 등 모든 동물들이 자주 방문하지만 곰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호텔은 안전을 위해 곰의 접근을 가능하면 방지하고 있으며 베란다에 음식을 두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운트워싱턴 호텔은 1902년 완공됐으며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을 거쳤지만 전통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호텔 건물을 둘러서 크고 넓다란 발코니가 있어 호텔의 넓은 전경을 내다보기 좋다. 불과 몇 년전까지 엘리베이터만까지 존재했었다. 어린이를 위한 야외수영장도 잘 구비되어 있고 넓은 잔디밭에서 뛰어 놀 수 있다.

1944년 이 호텔에서 세계 44개국 대표들이 참가, 개최한 금융 통화 회의에서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IMF, 세계은행(IBRD) 등을 탄생 시켰다.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공식 인정을 받았던 순간이었다. 당시 미국 대표 해리 D. 화이트는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금의 양에 비례해 달러를 함부로 찍지 않겠다고 약속한 안을 제시해 결국 채택시켰다. 영국 대표 존 M. 케인즈는 글로벌 중앙은행을 설립해 그곳에서 발행하는 방코르를 기축통화로 쓰자고 맞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발명한 가장 강력한 상품이자 무기가 바로 달러다. 달러를 함부로 찍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미국의 금태환 보장은 30년도 채 되지 않아 닉슨 독트린에 의해 폐기됐다. 미국은 세계기축통화를 마

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다.

미국이 내놓은 상품가운데 국제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이 달러다. 한국은 1998년 외화 즉 달러가 없어 무너졌던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어 달러 보유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신흥국들도 1997년,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후 달러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키 백과에 따르면 2019년 한국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다. 지난 2월 기준 한국은 4,046억 달러였다. 중국은 3월 기준 3조 9,990억 달러로 1위였고, 일본은 1조 1,218억 달러(2월), 스위스는 800억 달러(2018 5월), 사우디아라비아 489억 달러(1월), 러시아 487억 달러, 대만 463억 달러, 홍콩 433억 달러, 인도 411억 달러 순이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찰흙으로 빛는 마음의 기하학 세계적 거장 김수자 작가의 피바디 미술관 전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보파리 작업으로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김수자 작가의 전시가 피바디 미술관에서 열린다. 담고자 하는 물건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는 보파리의 미학을 통해 나와 타인의 관계, 치유와 재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김수자 작가가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것은 찰흙, 그것도 관객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양방향 작품이다.

35피트 너비의 커다란 테이블 주위로 24개의 의자가 놓여있다. 관람객이 전시장에 들어서며 건네 받은 찰흙 덩이를 양손을 이용하여 동그랗게 빚는 동안 12채널 사운드 설치 작품이 진흙과 물소리를 들려 내보낸다. 전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한 관람객이 찰흙을 빚으며 작품에 머무는 시간은 2분에서 15분. 동그랗게 빚은 찰흙이 테이블에 하나둘씩 쌓이며 비로소 마음의 기하학이라는 작품이 완성되어간다.

김수자 작가는 흙을 만지는 손의 움직임이 보파리나 이불보를 써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찰흙을 동그랗게 빚으려면 양방향으로 모서리를 깎듯 힘을 밀어 넣어야 한다. “예술은 마음의 모서

리를 깎는 행위” 라는 작가의 말과 관객들이 참여하며 만들어가는 작품이 서로 공명하여 커다란 울림을 준다.

미국에서 최초로 피바디 미술관에서 선보이는 ‘마음의 기하학’ 은 내년 1월 19일까지 전시 예정이다.

김수자 작가는 1957년 대구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1990년대부터 뉴욕을 주 무대로 파리, 영국, 밀라노, 빈, 도쿄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뉴욕 MoMa, P.S.1 현대미술센터, 빈 쿤스트할레,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모스크바 비엔날레 등 세계의 권위 있는 전시에서 소개되어 왔다. 김수자의 작품은 뉴욕 휘트니 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스위스의 쿤스트 뮤지엄 베른, 파리 시청과 리움 현대미술관, 뒤셀도르프의 K21, 도쿄 현대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Peabody Essex Museum
East India Square, 161 Essex Street, Salem, MA, 978-745-9500, pem.org
sun@bostonkorea.com

세계에서 가장 큰 바운스 하우스 올여름 리비어 찾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블루라인 ‘윈더랜드’ 역 이름으로만 미국 최초의 놀이동산이라는 옛 명성을 찾아볼 수 있었던 리비어 바닷가에 올여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운스 하우스가 찾아온다.

1만 제곱미터의 크기를 자랑하는 “빅 바운스 아메리카” (The Big Bounce America)는 가장 큰 바람풍선 캐슬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캐슬 모양의 바운스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볼풀을 비롯하여 거대한 미끄럼틀, 바람풍선 동물들이 있는 숲, 흔들거리는 농구 코트 등 끝없는 놀이 시설이 펼쳐진다. 신나게 놀다 지친 사람들이 편안히 누워 쉴 수 있는 바람풍선 침대가 있는가 하면 캐슬 한가운데 놓인 디제이 부스에서는 끊임없이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빅 바운스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놀이 시설은 “에어스페이스” (airSPACE)로 실제 우주 비행사처럼 점프하거나 거대한 미끄럼틀을 타고 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우주 체험 공간이다. 900피트의 장애물 코스인 “자이언트” (Giant) 또한 특별한 놀이를 찾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시설이다.

독립기념일 다음 날인 7월 5일부터 7일까지, 12일부터 14일까지 개장한다.

티켓은 3세 이하의 유아 및 보호자 16불, 7세 이하의 어린이 및 보호자 25불, 15세 미만의 어린이 및 보호자 25불, 16세 이상 성인 30불이며 나이에 따라 입장 시간이 나뉜다. 에어스페이스와 자이언트는 3시간 동안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며 바운스 하우스는 정해진 타임 슬롯에만 입장할 수 있다. 티켓은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프레더릭스 파크(Fredericks Park)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경우 블루라인 비치몬트 역에서 내려 걸어가면 된다.

The Big Bounce America
Fredericks Park | 15 Everard St, Revere, MA 02151
thebigbounceamerica.com
sun@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하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 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틀/중편, YOUTUBE \$34 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틀/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 ⁹⁹
--	---	--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KTBC / JTBC / JTBC골프 / 채널A(영어방송) / KIDS / 유아방송 / CBS(가족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생애 첫 올스타 선발 등판 류현진, 보스턴 온다

12일부터 주말 3연전 등판여부 관심 3연전 마지막 경기 선발 등판 전망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생애 첫 올스타전 등 전반기 최고의 메이저리그 업적을 쌓은 다저스 투수 류현진(32)이 12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3연전을 위해 보스턴을 방문한다. 이에 따라 류현진의 레드삭스전 선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류현진은 큰 변수가 없는 한 류현진은 평소처럼 나흘 휴식을 취하고 14일 일요일 레드삭스와 3차전 일요일 경기에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 류현진에게는 그동안 레드삭스와의 대결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류현진은 2013년 8월 25일 레드삭스 홈에서 만나 1회에만 4점을 내주는 등 5이닝 5피안타 4실점 하며 패전

투수가 된 바 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2차전 펜웨이에서 선발 등판해 5회 2사까지 1점으로 보스턴 타선을 잘 묶었다. 하지만 이후 안타 2개와 볼넷 1개로 만루 위기를 맞이하고는 마운드를 라이언 매드슨에게 넘겼다. 그리고 매드슨이 류현진의 책임 주자 3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바람에 자책점 4점과 함께 패전 투수의 명예를 썼다. 류현진에게 있어 이번 펜웨이파크 등판은 과거의 안 좋았던 기억을 설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달라진 자신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하다. 류현진은 올해 전반기 17경기에 선발 등판해 10승 2패, 평균자책점 1.73으로 리그를 평정했다. 내셔널리그 다승 부문 공동 1위, 평균자책점은 메이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에서 류현진이 내셔널리그 선발투수로 등판했다. 류현진은 이날 10이닝 무실점 투구를 펼쳤다

LA다저스와 레드삭스 3연전 일정

	12일 금요일 7시 10분 13일 토요일 7시 15분 14일 일요일 7시 05분	
---	--	---

저리그 전체에서 유일하게 1점대로 전반기를 마쳤다. 더구나 레드삭스는 지난해의 레드삭스가 아니다. 올시즌 49승 41패로 양키스, 레이스에 이어 동부지역 3위에 머무르는 등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우승 후유증이 전반기에 작용했다. 만약 전반기 페이스가 그대로라면 류현진에게도 손쉬운 상대일 수 있다. 류현진이 한국 언론의 예상대로

이번주 일요일 저녁 7시 5분부터 시작되는 펜웨이파크 야간 경기에 선발로 등판한다면 보스턴 한인 팬들로서는 최고의 일요일 밤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서늘해진 밤공기 미국내 가장 오래된 볼파크에서 레드삭스 경기는 물론 류현진 선수까지 볼 수 있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특히 연습이 시작되는 4-5시께 펜웨이 파크를 방문하는 경우 류현진 선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자녀들과 일찍 방문해 연습장면부터 구경하는 것이 좋다. 레드삭스 경기는 과거 시즌 전에 전경기 티켓이 매진되던 것과 달리 지금도 티켓 구매가 가능하다. 가장 저렴한 티켓은 40불 입석 티켓이다. 외야블리처는 53불짜리 좌석이 남아 있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파월, 금리인하 전망에 힘줬다...임기 다 채울 것

미 하원 금융위원회...연준 정치적 독립성도 강조 여야 의원들, 파월 지지..."트럼프 따르지 마라"

(서울=뉴스1) 김정환, 한상희 기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이달 말 10년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무역 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위협받는 미국 경제의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파월 의장이 미 하원 금융위원회이 같은 증언을 마친 직후 발표된 연준의 6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부추겼다.

의사록에 따르면 몇몇 정책위원들은 금리를 인하해서 미국 무역전쟁의 영향을 완화하고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고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달 말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및 여타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미국의 경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글로벌 취약점들을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미국 정부가 지난달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다른 주요국들의 지표

는 계속 실망감을 주고 있다"며 "이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며, 계속 무기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 무역,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취약하다"며 "우리가 중국과 다시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점은 건설적인 조치지만 불확실성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의 낮은 실업률이 인플레이션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반적인 물가상승 속도는 여전히 "잠잠한" 상태이며 임금상승률도 미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연준이 경기 과열 위험 없이 금리를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민주당 하원의원의 질의에 대해 파월 의장은 "인력수급이 뻣뻣한 노동 시장과 인플레이션과의 연관성은 약해졌다"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됐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지속적인 미국 성장 "기준 전망"과 지속적인 물가상승, 다른 주요국들의 경기둔화, 무역 위협에 의한 기업투자 하락을 포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한 상당한 위험들을 대조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기업 투자가 현저하게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진전은 더 큰 불확실성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금융위 여야 하원의원들이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파월 연준 의장을 일제히 지지했다.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위원장은 파월 의장에게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정책위원들이 무모하고 유해한 경제·사회정책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인 전술을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워터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 요청

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파월 의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물론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며 "4년 임기를 온전히 다 채울 생각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앤디 바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흡집 잡기에 대한 비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피드백은 출처가 무엇이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감시의 필요하고도 건설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여러분이 우리를 감독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체제에서 그것은 의회다"라고 단언했다.

acenes@news1.kr

“건강한 밥상이 왔습니다.”

시골 밥상이 생각나는
유기농 콩으로 직접 만든 손두부

617.208.8133
160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ORGANIC WE COOK NON-GMO KIM'S TOFU

2019
LEE SUNHEE CONCERT
climax
Mohegan Sun Arena
07.27.2019 Sat. 8PM
\$250/ \$200/ \$150/ \$120/ \$90
Tickets: (718) 358-1651 | info@jhlenterprise.com

Offline Ticket Sale Flushing NY / Hicksville NY / Ridgefield NJ

Online Ticket Sale <http://hotdeal.koreadaily.com> Tel. (213) 784-4628

Shuttle Bus Tel: (888) 508-9793
Presented by JHL Enterprise
 jhlenterprise jhlenterpriseNY

ASIANA AIRLINES

ASIAN HOTLINE: 877.999.9977 | MOHEGANSUN.COM/888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굉장한 준비하는 상인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ichael.lee@fairwaymc.com
mtgwithmike@gmail.com

2 Adams Place, Suite 410 Quincy, MA 02169

민주 대선주자 엘리자베스 워렌 풀뿌리 후원 모금 무섭게 모였다

2분기 모금액 1910만달러...전분기 대비 3배 '급증' "학자금대출 등 정책 중심 접근이 유권자 공략"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0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렌(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약 3개월 간 100% '풀뿌리 기금'으로 1910만달러(약 225억원)의 선거자금을 모금했다. 1분기 모금액에서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워렌 의원은 지난 분기 선거 모금액 1위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최근 지지율이 급등한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상원의원도 제쳤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렌 의원은 8일 "2019년 2분기 1910만달러를 모금했다. 민주당 경선주자들 중 3위 안에 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샌더스 의원과 해리스 의원은 각각 1800만달러, 1200만달러를 모금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워렌 의원을 제친 후보는 피트 부트지치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2480만달러)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2150만달러) 2명에 불과하다.

워렌의 모금액은 100% 풀뿌리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그는 워싱턴 정계 로비스트 자금, 슈퍼팩(Super PAC·특별 정치활동위원회), 기업 자금, 비공개 모금 행사 등을 모두 거절한 채 온라인 소셜 기부를 통해서만 선거 자금을 모았다.

2분기 워렌 캠프에 모인 후원금의 평균 액수는 28달러였고, 지금까지 약 38만 4000명이 후원에 참여했다. 이들 가



엘리자베스 워렌(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운데 80%가 2분기 처음으로 워렌에게 부금을 냈다.

이에 대해 미국 진보 성향 온라인매체 '살롱'(Salon)은 "워렌 의원의 정책 중심 접근이 점점 더 많은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나는 계획이 있다(I have a plan)는 워렌 의원의 선거구호가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 부채를 탕감하고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위기를 극복하고, 유색인종 여성의 임금을 인상하는 워렌 의원의 제안이 널리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렌 의원은 로버트 물러 특별검사의 2016년 러시아 스캔들 보고서가 발표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첫 대선 후보이기도 하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설 후보를 뽑기 위해 민주당 후보 24명이 경쟁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선거자금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지난주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재선을 위해 2분기 총 1억5000만달러(약 1239억원)를 모금했다고 밝혔다.

각 후보들은 오는 15일까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2분기 모금액 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angela0204@news1.kr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미 상원의원

민주 대선주자들, 바이든 사과 환영하지만 선긋기

바이든, 인종분리정책 지지 의원 옹호 발언 사과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 상원의원들을 옹호한 발언 등에 대해 뒤늦게 사과하자 다른 민주당 주자들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7일 CNN에 따르면 흑인인 카말라 해리스(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이날 "그는 자신의 발언의 중요성을 인식할 권리가 있다"며 "사과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흑백 학생 통합 스쿨버스에 반대하는 등 인종분리주의자들이 했던 많은 역사를 우리는 모른 척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흑백 통합 스쿨버스에 반대했던 40년 전의 바이든은 첫 민주당 대선 주자 TV토론회에서 난타를 당했다.

코리 부커(민주·뉴저지) 상원의원도 "우선 바이든 전 부통령에 감사하고 싶다"며 "미국은 인종 문제에 대해 그 어떤 불이익이나 비난을 감

수하지 않고서도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6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섬터에서 연설할 때 "내가 몇 번이고 반대했던 이들을 칭찬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에 대해 후회하며, 이로 인해 고통받거나 오해를 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 날 같은 주 찰스턴 연설에서도 사과를 했던 이유에 대해 "그 발언에 가장 불쾌했을 법한 관중들 앞에서 과한 방식으로라도 뉘가 해야 할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민주당 프 라이머리(예비선거) 유권자의 60%가 흑인이다.

해리스 의원은 지난달 바이든 전 부통령이 1970년대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지내면서 다른 일부 의원들과 함께 당시 논란이었던 흑백 통합 스쿨버스제에 반대했다고 폭로했다.

hypark@news1.kr

드림 케이터링 DREAM CATERING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한식 및 중식
지금 경험하세요!



MR SUSHI, TD GARDEN 보스턴 셀틱스 VIP룸 일식, 신신마트, SUSHI YA 등에서 일하시는 20년 이상의 파트별 전문 요리사들이 일식, 한식, 중식을 예산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드립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서, 현재 보스턴 커플리에 위치한 THE COLONNADE BOSTON HOTEL을 비롯하여 HARVARD CLUB, WINCHESTER COUNTRY CLUB 외에도 소규모 회사파티, 학교, 학원, 각종 한인들 단체모임에 2001년부터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781.308.2073(줄리 안)



SINCE 1987
MR. SUSHI
ARLINGTON



82년을 달려온 딱정벌레 이제 쉬렴 역사 속으로

1938년 히틀러의 국민차 지시로 포르쉐가 제작 10일 멕시코 푸에블로 공장에서 마지막 버전 생산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딱정벌레를 닮은 독특한 모양으로 지난 82년간 큰 인기를 끈 폭스바겐의 상징 '비틀'이 10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9월 단종 계획을 밝혔고 이날부터 생산을 중단한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스캇키오 폭스바겐그룹 북미법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비틀이 없었다면 오늘날 폭스바겐은 상상할 수 없다"며 "이제 비틀의 시대는 끝났지만 비틀이 폭스바겐 브랜드의 성장에 기여한 역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멕시코 푸에블라 공장에서 조립된 마지막 비틀은 폭스바겐 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국민차를 만들라는 독일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지시를 받은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1938년 첫 출시한 '비틀'은 독일의 전쟁 상대였던 미국에서 인기를 모으며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 됐다.

특히 1968년 개봉된 디즈니 TV 시리즈 '러브 버그'에 등장한 '허비'의 실제 모델이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1세대 모델은 2003년 단종되기 전까지 65년간 2100만대가 넘게 생산됐다. 1998년에 나오기 시작한 2세대 뉴비틀은 2012년 3세대 더비틀로 이어졌다.

하지만 10여년 전부터 판매가 줄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소형차보다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이나 대형차를 더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6월 24일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방갈로르에서 열린 세계 폭스바겐 비틀의 날 23주년 기념행사에서 비틀이 일렬로 주차돼 있다



아돌프 히틀러가 1938년 페르디난트 포르쉐로부터 '비틀'의 원형모델인 Kdf-타입을 선물받고 기뻐하고 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비틀의 경쟁력은 더 줄었다.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도 악영향을 미쳤다.

폭스바겐은 이 같은 세태를 반영해 비틀을 생산하던 공장에서 향후 북미 시장을 겨냥한 SUV를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틀 마니아들은 비틀의 단종 소식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남부 콰우테펙에서 비틀 1세

대로 택시 운전을 하는 아드리안 마르티네즈는 "비틀은 아무리 가파른 언덕이라도 문제없이 오를 수 있다"며 아쉬워했다.

최근 1975년형 비틀 1세대를 샀다는 콰우테펙의 정비공 베르나르도 가르시아는 "13살 때 처음으로 비틀을 얻었고 그 이후로도 비틀을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 차는 나보다 더 많은 기록을 갖고 있다"며 비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angela0204@news1.kr



보잉, 737맥스 여파로 에어버스에 세계1위 자리 뺏겨

맥스 주문 취소 등 올 상반기 인도량·순주문 급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인기 기종이었던 737맥스의 추락사고 여파로 올 상반기 인도량이 37% 급감, 7년만에 처음으로 경쟁사인 에어버스에 세계 1위 자리를 빼앗겼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잉사는 이날 올 상반기(1~6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8대에 비해 37% 급감한 239대를 전 세계 항공사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에어버스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389대의 비행기를 인도했다.

보잉의 판매(인도)량 급감은 지난해와 올해 잇따른 추락참사로 인해 737맥스의 주문이 사실상 끊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에티오피아

항공 추락사고로 157명이 사망한 후 보잉 737맥스의 신규 주문은 한해도 보고되지 않았다.

실상가상으로 지난달 737맥스의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면서 최소한 9월말까지 운항이 재개되지 못하게 됐다. 잇따른 악재에 보잉 737맥스는 신규 주문이 없는 것은 물론 기존 주문도 취소되는 사례가 빚발쳤다.

그 결과 보잉의 올 상반기 순주문량은 마이너스(-)119대로 집계됐다. 반면 에어버스는 보잉 737 주문 취소로 인한 대체 수요로 에어버스 320의 판매가 늘어났다. 그 덕에 에어버스는 상반기에 88대의 순주문을 기록,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

ungaungae@news.kr

FOR SALE

FULL-PLANT DRY CLEANING STORE (NO WHOLESALE / DROP-OFF)

YEARLY INCOME : \$500,000+

CALL: 781.233.0522

WORK: 781.233.0522

CELL: 781.558.6457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동원, YOUTUBE

\$34⁹⁹

V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동원, 영화/상인, YOUTUBE

\$39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형제 떡집

GRAND 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불화수소 북에 밀수출? 근거 없어, 일 수출체계 폼훼 중단해야

불법수출 적발 미국도 최다...오히려 일본은 공개안해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다시 북한으로 밀수출했다는 일본 정부의 의혹 제기에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우리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세종 청사에서 최근 일본측이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일본 후지TV는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건이 2015년부

터 올 3월에 걸쳐 총 156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놓고 우리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주장과 달리 수출입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 삼고 있는 국가가 일본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거론하며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본이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우리나라와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지만 일본은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 주장에 대해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며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계를 폼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하태경, 북에 불화수소 등 수출한 나라는 일본...적발사례만 30건

(서울=뉴스1) 이호승, 이형진 기자 =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반출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이 오히려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의 비정부기구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CISTEC은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사건이 30여건에 달한다"며 "수출하려다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확인한 사례가 30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일본 일각에서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 같은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런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은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이 이날 공개한 CISTEC의 '부정수출 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CISTEC은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는 고베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탑승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불화수소산과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 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

그룹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

CISTEC은 "이 건은 북한에 긴급 지원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었다"고 명시했다.

또 CISTEC은 "직류안정화전원을 수출하려다 2002년 11월 경제산업상으로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 수출하려면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를 경제산업상 및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CISTEC은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주파수변환기와 3차원 측정기, 생물 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동결건

조기, 미사일 운반 등에 전용이 가능한 대형 탱크 로리 등이 북한이 밀수출 또는 부정수출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CISTEC의 자료를 근거로 "일본 방송이 어제 한국이 전략물자의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다막은 것이고, 외국에 수출해도 다 회수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오히려 한국이 대북 물자(수출을) 제대로 관리하고 일본이 관리를 못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일본은 가짜뉴스, 괴담을 이용해 억지주장을 퍼지 말고 즉시 한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helmsford Beauty Academy

로웰에서 5분, 로렌스에서 15분, 벌링턴에서 10분, 앤도버에서 10분 거리

- 경험있는 교사진
- 90% 주보드 시험 통과후 바로 취업
- 풀타임 및 파트타임
- 매달 속눈썹 연장, 속눈썹 리프트, 눈썹 문신 훈련 클래스



뷰티 아카데미 수업 내용 및 시간

에스테틱스: 600시간

페이셜, 왁싱, 메이크업, 속눈썹 연장 등 포함

매뉴큐어리스트 : 100시간

매니큐어, 페디큐어, 아크릴릭 젤, 디핑 파우더 등 포함



60 Chelmsford st #2, Chelmsford MA 01824
978.250.4488 978.987.3766

특스베리 소재 성업중인 네일살롱에서 네일 테크니션 구인중
주급 \$800-\$1000
978.967.6695, 978.987.3766

2개 대형 네일살롱 세일중
12개 스파 페디큐어, 10개 매니큐어 테이블
2 페이셜+ 왁싱 룸, 월마트가 있는 대형 플라자 내(가격 16만불 이상)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유승준 입국길 열리나...대법, 비자거부 절차상 하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대법원 판결로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지시'에 해당한다면서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 재량행위인데, LA총영사관은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국금지 제한은 5년간인 점 △재외동포법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얻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양정 사이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LA총영사관은 거부처분 당시 이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씨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증발급 거부처분 뒤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제한 연령이 38세에서 41세로 상향됐으나 개정법률을 따르더라도 유씨는 43세라 제한연령을 지났다.

재판부는 사증발급 불허를 문서상이 아닌 유씨 부친에게 유선상으로 통보한데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군대에 가겠다'고 했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

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해당조항은 대한민국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증발급 불허를 유씨 부친에게 유선상으로 통보한데 대해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송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절차상 하자과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로 위법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리는 2심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고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씨는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는 2002년 1월 출국 뒤 2003년 예비장인상 때 3일간 일

시귀국한 것을 빼면 17년 6개월 동안 한국에 오지 못했다.

대법원 측은 "유씨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나,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위법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LA총영사관은 그 취지에 따라 하자를 보완해 유씨 사증발급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유승준, 대법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평생 반성하겠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미국에 거주하는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자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유씨 법률대리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었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같은 유씨 입장을 전했다.

유씨 법률대리인은 "유씨는 2002년 2월 1일 입국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왔다"며 "유씨는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모든 생활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대리인은 "유씨가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선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이 비난하는 의

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mith@news1.kr

엘프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
확장
오픈
★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어목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 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JULY 12th - JULY 18th, 2019

KOREAN AGAR AGAR SALAD

TIRED OF SAME LEAFY SALAD? MAKE YOURSELF A CLEAR SEAWEED SALAD WITH SOME KOREAN SPICE KICKS!
H마트와 함께 색다르게 즐기는 샐러드! 칼로리가 낮은 우뭇가사리에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우뭇가사리 샐러드로 올 여름 건강 다이어트 하세요~!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음식별로 성공정답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CONTACT me@hmart.com



Seedless 3lb Watermelon 씨없는 수박
\$4.99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Mango 망고
\$7.99

Washington Red Cherry 워싱턴 레드 체리
\$3.49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

White Peach 백도
\$1.99

New Jersey Blueberry 뉴저지 블루베리
\$2.49

Red Seedless Grape 씨없는 적포도
\$1.49

House Cucumber 하우스 오이
\$0.99

JINGA Tofu 진가네 두부 Firm/Soft - 16oz./pkg
\$0.99

MEAT | at unbeatable low prices
Boneless Beef Strip Loin Steak 채곤 스테이크 **\$17.99**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 생삼겹살 **\$6.99**

SEAFOOD | at shockingly low prices
Headless Tiger Shrimp 머리없는 타이거 새우 **\$22.99**
Frozen Abalone 냉동 전복 10-12" **\$19.99**

Sliced Beef Ribeye for Bulgog 냉동 수불고기 **\$6.99**

Cornish Hen 냉동 영계 **\$2.49**

TONGTONGBAY Oysters on the Half Shell 동동베이 반갠생굴 **\$6.99**

Head-on Louisiana Shrimp 머리있는 루이지애나 자연산 왕새우 10-15" **\$7.99**

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닭 사테 **\$2.99**

Marinated Pork CT Butt Steak 양념 돼지 목살 스테이크 **\$4.99**

Chilean Sea Bass Chilean 새우 스테이크 **\$19.99**

Dabs 참가자미 **\$2.99**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AWAKAWI California Premium Short Grain Rice **\$21.99**
KWANGCHUN MONGHYUP Green Tea Seasoned Layer **\$9.99**
HARD Cold Noodles **\$3.99**
I WANT Paper Towel **\$10.99**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9.99**
HARD Cold Noodles **\$4.99**
KIKKOMAN Oyster Sauce **2\$3**
HAIOR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3.99**
CJ POKSI Korean Fried Pork Meat **\$1.99**

종가집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Made with 100% Korean ingredients, CHONGGJA Kimchi offers a taste you can trust!

HARD GOMPYO Wheat Flour **\$3.99**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8.99**
CJ TongTong Sausage **\$3.99**
CALBEE Fruit & Granola **\$6.99**
SUNBU FOOD Korean Style Popcorn **2\$3**
MIRUKYO Japanese Snack Wagashi **\$3.99**
NESTLE Kit Kat Matcha Chocolate **\$2.99**
PANDA Food Chopper **\$6.99**
KUHUS Stainless Steel Electric Kettle **\$21.99**
VT x BTS Cosmetic Collagen Pack **\$29.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mis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윤석열 임명 청 강행수순...중앙지검장 0순위 윤대진은?

(서울=뉴스1) 구교은, 손인해 기자 = 청와대가 사실상 '대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향후 야권의 포화는 '소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향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이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윤 국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증 논란까지 불거진 윤 후보자의 청문회 말바꾸기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거세 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청와대는 법에 정해진 송부 기간이 지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앉힐 경우 야당의 표적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0순위로 꼽히는 윤 국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국장은 윤 후보자 '위증' 논란으로 비화된 유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윤 전 서장은 윤 국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자가 2012년 당시 기자에게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다'고 말한 것은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야당은 '조폭적 의리'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 국장이 자신의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다만 정치권의 공세는 법령 위반과 관계 없이 어질 전망이다.

야당이 윤 국장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정치적 계산도 숨어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서울중앙지검장인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윤 국장이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적폐청산'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윤 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문재인 정권 말 검찰총장을 맡을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국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는데 당시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대학 재학 당시 함께 학생운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윤 국장이 차기 대선 정국에서 검찰총장을 맡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윤 후보자 청문회가 '윤대진 청문회'라고 불릴 정도로 윤 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 사건 관련 의혹을 물고 늘어졌고, 청문회 막판 윤 후보자 녹취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동영상을 공개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되는 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윤 후보자에 이어 윤 국장까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히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강행해 부적격 인사를 검찰총장에 앉힌다 해도 국회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이후 정국 경색의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kukoo@news1.kr

윤석열 위증 논란 스텝 더 꼬였다, 번복에 재번복 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 증인' 논란이 국회 인사청문회 종료 이틀째인 10일 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윤 후보자는 막역지우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뒤늦게 정정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이 제기되는 등 과문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모양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유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수사 당시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답했다. 해당 사안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나 다름없던 만큼 야당의 공세가 거셌지만 윤 후보자의 입장은 단호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의) 동생이 현재 검사이고 이 변호사는 윤 국장과 같이 중수과 소속이었다가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라 (윤 국장과) 더 가깝다"며 "제가 변호사 소개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1시40분쯤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이같은 답변과는 다른 윤 후보자의 육성 녹음이 공개되자 상황은 반전됐다. 윤 후보자가 2012년 주간동아와의 통화에서 "이남석에게 유우진 서장을 만나 보라고 말했다"고 직접 언급했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에 "제가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수정했다.

9일 오전 윤 국장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뒤 상황은 좀더 복잡해졌다. 윤 국장이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다름아닌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번복했던 입장을 또 다시 번복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윤 국장은 이날 기자단에게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 역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유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며 "7년 전 기자와 전화통화 내용에 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켜보시는 국민들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달리 지난 2012~2013년에는 이 변호사가 윤 국장의 소개로 선임돼 국세청 송달 업무를 맡는 등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된 점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 후보자의 발언과는 다른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윤 후보자가 위증 논란이 일 것을 알면서도 애당초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자신이 아닌 윤 국장이라고 밝혔다면 위증 논란에 휩싸일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 후보자 측은 이 변호사 선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선임 과정에 윤 후보자와의 직접 연관이 없었던 만큼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 역시 자신의 청문회에서 윤 국장이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친형제처럼 가까운 사이인 윤 국장이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스 기질이 다분한 윤 후보자의 스타일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야기는 후배를 내세워 피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 얘기다.

그러나 문제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의 대응에 혼선이 거듭되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10일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조폭 영화에서 조폭들이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당의 심재철 의원 역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성경에서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윤 후보자는 6번 부인했다. 위증 행위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여당 인사들의 지지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비판 의견도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말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고 적극적 거짓말을 하는 건 미담인가"라며 "정말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것인가. 후보자에게 듣고 싶다"라고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maum@news1.kr

소녀상 모욕한 한국 청년들 조롱하려고 그랬다 진술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지난 6일 경기 안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행동을 해 논란을 일으킨 청년 4명이 경찰조사에서 위안부 피해를 할머니들을 조롱하려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모욕 등 혐의로 A씨(31), B씨(25), C씨(26), D씨(35) 등 4명을 입건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조롱하기 위해 소녀상에 침을 뱉었고 일본말을 하면 모욕감을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또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과정에서 '천황폐하 만세'란 말을 일본어로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 4명은 지난 6일 검거 직후 경찰에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장난기가 발동해 소녀상에 침을 뱉었다"며 "일본어를 할 줄 알아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일본어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A씨 등 4명에게서 확보한 추가 진술 내용을 전달했으며 고소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할머니들은 경찰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조사 내용을 전해들은 뒤 큰 충격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모두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광주 나눔의 집은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할머니들께서는 청년들의 잘못도 크지만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도록 놔둔 우리 사회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또 "큰 충격을 받으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사과를 한다면 받아들일 것이고 몸소 겪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려주고 싶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 측은 A씨 등 4명 모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이와 반대로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6일 오전 0시 5분께 경기 안산시 4호선 상록수역 광장에 있는 소녀상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시비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jihjip@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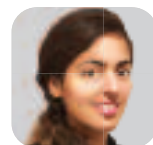
미니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Fish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몰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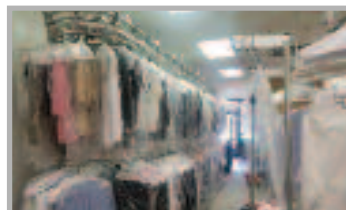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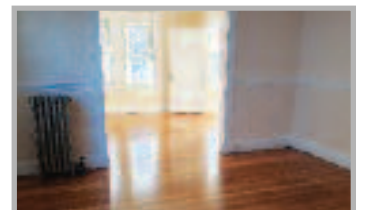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1200 sq.ft.
Asking \$140,000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sking \$40,000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3 Beds & 1 Bath, 새로 레노베이션된 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 인접, 8월15일부터 입주 가능
Asking \$2400/월



리테일 가게 매매
대형 아시안 슈퍼마켓내에 입점 연중무휴로 바쁜 가게, 안정된 고정 매출 업종 변경 가능
Asking 가격 문의 바람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sking \$50,000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聖陽浦安 多不呂 波士頓 韓人聖堂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성당 야드세일
 6월 1일 (토) 9시-2시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동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소자본 투자, 고소득 가능

총 투자금 \$70,000~\$150,000으로 가능합니다.

짧은 영업시간, 고소득 창출



북미 넘버 원 안마의자 공급업체가 프랜차이즈를 시작합니다.

OTA Healthmate - 가맹점
designed by **Osaki** **Titan**



Buena Park / LA store

**본사
책임**



배송

전 미국 7일 안



서비스

24/7



워런티

기본 3년, 5년



북미 NO.1 브랜드

OTA Healthmate

1-888-848-2630
www.otahealthmate.com
www.titanchair.com

창업 문의: David Cho
469-271-3368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병원'

스마트폰에 중독된 50~60대 중장년층 '거북목 증후군' 주의보!

- 거북목 증후군 환자 매년 증가, 특히 50~60대 환자 5년새 19% 늘어
- 목을 앞으로 내밀거나 고개 푹 숙이는 등 잘못된 자세가 주원인
- 방치하면 목 디스크로 발전! 바른 자세 유지 등 생활습관 개선 필수



한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는 50대 이상 사용자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지난해 1월 49억분에서 같은 해 12월 87억분으로 무려 7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사용자 수 역시 1월 762만 명에서 같은 해 12월 943만 명으로 24% 늘었다.

이처럼 50~60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많아지면서 어깨와 목 주변의 통증을 호소하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점점 늘어만 가는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 양지병원 재활의학과 이유나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C자 모양의 정상적인 목뼈가 잘못된 자세로 인해 일자로 변형되는 거북목 증후군은 주로 장시간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 보는 일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주로 발병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에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개를 푹 숙이는 등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거북목 증후군이 나타날 위험이 더욱 높다.

거북목 증후군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할 때 취하는 잘못된 자세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일자목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목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북목 증후군은 거북이 목처럼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있는 자세 때문에 목뼈가 변형되는 증상으로

일자목 증후군이라고도 부른다. 목뼈의 수는 7개로 이 7개의 목뼈는 앞으로 볼록하게 휘어 C자 모양을 띠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머리를 앞으로 쭉 빼고 구부정한 자세를 지속하면 C자 모양의 굴곡이 일자로 변형되는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한다.

가장 흔한 원인은 눈높이보다 낮은 컴퓨터 모니터를 오랫동안 내려다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딱바로 쳐다보지만 컴퓨터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시간이 갈수록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로 변하게 된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도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푹 숙이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다. 머리와 목 높

이보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거북목 증후군이 심해져 일자목이 되면 머리 무게를 제대로 분산시키지 못해 척추의 윗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아 목과 어깨 등 주변 인대와 근육에 통증을 유발한다. 실제로 고개가 1cm 앞으로 빠질 때마다 목뼈에 가해지는 하중은 2~3kg이상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근막통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 두통, 현기증, 눈의 피로, 손저림, 만성피로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무엇보다 거북목 증후군은 목 디스크로 발전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평소 바른 자세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 관리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추어야 하고, 틈틈이 목을 돌리거나 주변 근육을 주물

러 주는 등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목 디스크로 발전하기 전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거북목 증후군은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인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 없이 전문치료사의 손과 교정에 필요한 소도구를 이용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체형 교정이나 근력 강화에 효과적이다.

거북목 증후군 예방의 기본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며, 특히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틈틈이 두 턱을 만드는 습관으로 목을 당겨 주는 것이 좋다. 특히 50~60대 중장년층의 경우, 관절과 뼈의 노화가 본격화되는 시기라 목 디스크로 발전할 위험도 훨씬 높은 만큼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은 피해야 한다.

[TIP. 거북목 증후군 예방하는 생활습관]

1. 컴퓨터 모니터는 시선보다 아래에 놓이지 않게 책 등을 쌓아 눈높이를 맞추기

2. 스마트폰을 볼 때는 고개를 푹 숙이지 말고,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들고 볼 것

3.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은 금물! 20~30분 간격으로 목과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틈틈이 턱을 앞으로 당겨 두 턱을 만드는 습관을 들일 것

4. 베개는 목이 C자 모양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근육에 긴장이 가지 않도록 바닥에서 6~8cm 정도를 유지할 것

5. 엷드린 자세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자는 것도 절대 피할 것

"거북목 증후군"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617-949-176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Quincy condominium.
644 Sq, 1bed, 1bath. 1985 built, condo fee \$330. 투자용으로도 좋은 위치. North Quincy "T" station, Marina bay 걸어서 다닐 수 있음. 수영장 있음

ASKING \$27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매매
30년 이상된 대형 물안에 위치. 고정 고객과 안정된 매상. 하이드로카본. Full plant.

ASKING \$19,9500





보스톤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


ASKING \$99,000






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Cash \$90,000, owner finance \$ 30,000

ASKING \$120,000





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

ASKING \$375,000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애나 정
617.780.1675



오성빈
978.505.3736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보스톤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

ASKING \$170,0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

ASKING \$200,000

'유열의 음악앨범', 8월 개봉 확정

레트로 감성 정해인X김고은

(서울=뉴스1스타) 정지우 기자 =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정지우 감독)이 8월 개봉한다.

CGV아트하우스는 10일 '유열의 음악앨범'이 8월 개봉하는 소식과 함께 레트로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론칭 포스터를 공개했다.

'유열의 음악앨범'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처럼 우연히 만난 두 사람 미수(김고은)와 현우(정해인)가 오랜 시간 엇갈리고 마주하길 반복하며 서로의 주과수를 맞춰 나가는 과정을 그린 감성멜로.

론칭 포스터에는 레트로한 감성이 가득한 제과점을 배경으로 그 시절 미수와 현우로 완벽 변신한 김고은, 정해인 두 배우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특히 포스터 속 '미수제과점'은 1994년 우연히 그곳에 들른 현우로 인해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는 기적이 펼쳐지는 장소이기도 해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

미수, 현우 두 사람 모두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되는 공간 '미수제과점'의 모습이 담긴 '유열의 음악앨범'의 첫 론칭 포스터는, 이후 이 영화를 극장에서 만나게



될 관객들에게도 각별한 의미로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마치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동네, 그 자리에 실제로 존재했을 것만 같이 익숙하면서도, 더 반가운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 있어, 90년대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그 시절의 추억을, 그렇지 않은 관객들에게는 새로우면서도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론칭 포스터는 '두근두근 돌아가고 싶은 그 시절 그 순간'이라는 카피 아래 활짝 웃고 있는 두 배우의 표정 만으로도 설렘이 가득 묻어 난다. 현

실의 한 순간을 미려하게 포착하는 정지우 감독의 섬세한 감정 연출이 더해진 영화는 오랜 시간 운명 같이 반복되는 엇갈림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자 하는 미수와 현우의 설레는 마음이 애뜻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우 감독 특유의 섬세한 표현과 공감가는 연출, 그리고 김고은, 정해인 두 배우의 반짝 반짝 빛나는 멜로 케미스트리로 벌써부터 많은 예비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eujenej@news1.kr



'비긴 어게인 3', 박정현X수현 이탈리아서 완벽 하모니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이탈리아로 음악 여행을 떠난 '패밀리밴드' 팀의 여유로운 한때가 포착됐다.

오는 19일 오후 9시 처음 방송되는 JTBC '비긴어게인3' 측은 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첫 번째 팀인 박정현, 하림, 현리, 수현, 임현일, 김필의 새로운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티저 영상은 푸르른 바다 호수 앞에서 쉬어가고 있는 '패밀리밴드'의 모습을 담았다. '완도 완도 완도(Quando, Quando, Quando)'를 부르며 호흡을 맞추는 호소력 짙은 박정현의 목소리와 감미로운 수현의 음

색이 완벽한 하모니를 선사한다. 다른 멤버들 역시 저마다 악기를 들고 음악에 흠뻑 빠져든 모습이 눈길을 끈다.

멤버들 옆에 삼삼오오 모여들어 노래를 듣는 시민들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어린 꼬마 관객에게 다정하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주고 있는 현리의 모습 역시 놓칠 수 없는 관전포인트다.

한편 낭만적인 정취로 가득한 이탈리아에서 펼쳐진 음악 여행기는 오는 19일 오후 9시 처음 방송되는 '비긴어게인3'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unga@news1.kr

7월 14일 - 7월 2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서로 마음이 합쳐지니</p> <p>●운수:공정의 힘을 믿어보세요. 믿고 기다리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결과도 끌어올 것입니다. ●금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고 여기저기 부지런히 뛰어다니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일에 자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정: 서로의 마음이 합쳐지니 의견도 통합니다.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로 부족함이 없는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5, 18일 길일, 17, 20일 주의.</p>	<p>소띠 시아가 환해지면서</p> <p>●운수: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세요. 해결점을 찾고 뜻밖의 좋은 결과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금전:기본 전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기본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나 지출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애정:뽕알개 가려져 앞을 구분하지 못했던 시아가 환해지면서 바로 앞에 가까이 있었던 사랑의 짝을 발견하게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4, 19일 길일, 18, 20일 주의.</p>	<p>범띠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p> <p>●운수: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심기일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전: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씹씹이는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고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기억이나 간직해오던 것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게 되는 주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7, 20일 길일, 16, 19일 주의.</p>
<p>토끼띠 전문가에게 물어보고</p> <p>●운수:옳고 그름을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크게 잘 되는 것도 없지만 크게 문제되는 일도 없이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금전:현 상태에서 투자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노력은 안 하고 잘 되기를 바라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는 것, 이런 게 바로 욕심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6, 18일 길일, 14, 20일 주의.</p>	<p>용띠 지혜롭게 활용하도록</p> <p>●운수:구체적으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는군요. 모처럼 온 이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금전: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그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상대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4, 16일 길일, 15, 17일 주의.</p>	<p>뱀띠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p> <p>●운수: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게 되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금전: 현실 문제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익이 앞서거나 너무 돈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차마 말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5, 20일 길일, 14, 16일 주의.</p>
<p>말띠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p> <p>●운수:심신이 불안정하고 궁지에 몰리거나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주변 사람과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불안한 상태에서 다소 용동이 되겠지만 아직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못할 것입니다.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쳐다 못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6, 19일 길일, 14, 17일 주의.</p>	<p>양띠 행운이 함께 하고</p> <p>●운수:현실을 직시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죽은 버드나무에서 꽃이 피는 격이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더라도 곧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행운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즐거운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20일 길일, 15, 18일 주의.</p>	<p>원숭이띠 부지런히 노력해야</p> <p>●운수:발 벗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위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금전: 돈이란 없다고도 있고 있다기도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어도 만족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농담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말장난이 지나치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고 금이 갈 수 있으니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p>
<p>닭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p> <p>●운수: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능률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금전:동업을 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애정: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제 기본에 빠져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5, 19일 길일, 14, 17일 주의.</p>	<p>개띠 활기를 찾게 되는</p> <p>●운수:집안이 화평하니 어려웠던 일이 대부분 해결되고 부진하던 사업도 활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금전:모든 일에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뜻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애정: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오고 애정문제에 있어서도 희소식이 따르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6, 20일 길일, 15, 18일 주의.</p>	<p>돼지띠 집고 넘어가야</p> <p>●운수: 서두르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돈 쓸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지출이 많으면 많이 벌어도 소용없으니 신중하게 지갑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심이나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집고 넘어가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7일 길일, 16, 19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ttapan SQ., MA 에 있는 생선가게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T. 603-401-4986

뉴장수 갈비에서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Full Time 또는 Part Time 모두 가능)
T. 781-272-3787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메이над 소재 한인식당 매매합니다.
렌트비 저렴, 러커라이센스 보유.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괴물 신인 ITZY, 29일 컴백 확정...ITZY ICY' 티저 공개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괴물 신인' ITZY(있지)가 오는 29일 컴백하며 올 여름 가요계 접수를 예고한다.

10일 JYP엔터테인먼트는 ITZY의 SNS 채널에 새 앨범 'ITZY ICY(있지 아이씨)'의 단체 티저 2종을 깜짝 게재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ITZY는 오는 29일 오후 6시 새 앨범 'ITZY ICY'를 발표한다.

공개된 티저는 ITZY 다섯 멤버의 우월한 비주얼과 시선을 사로잡는 통통 튀는 매력을 가득 담아 시원함을 전했다. 특히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예지, 리아, 류진, 채령, 유나는 ITZY만의 개성이 잘 드러난 스타일링과 화려하고 트렌디한 콘셉트를 완벽 소화해내며 '역대급 신인'다운 비주얼을 과시했다.

또 해당 티저 속 앨범명의 의미를 묻는 문구 'ITZY ICY' 역시 올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콘셉트를 암시하고 있어 이번 컴백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2019 가요계의 가장 핫한 신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ITZY는 올해 2월 12일 첫 디지털 싱글 'ITZY Different'(있지 디퍼런트)와 타이틀곡 '달라달라'를 발표하고 데뷔했다. 데뷔곡 '달라달라' MV는 공개 18시간여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고 57일 만에 1억 뷰를 넘어서며 K팝 데뷔 그룹 기준 '최단기간 1억 뷰 돌파' 기록을 수립했다. 또 K팝 걸그룹 기준 '최단기간 지상파 음악방송 1위' 및 지상파 7관왕을 포함해 '음악방송 총 7관왕' 등 숏한 신기록을 작성하며 '2019년 가요계 최고 신인'의 탄생을 알렸다.

이울러 예지, 리아, 류진, 채령, 유나 다섯 멤버들은 뚜렷한 캐릭터, 트렌디하고 개성 넘치는 비주얼 및 스타일을 선보이며 특별한 매력을 드러냈고 데뷔곡 '달라달라'로 신예답지 않은 파워풀한 무대를 선사하며 '무대 장인'이라는 닉네임도 얻었다.



ITZY는 지난 8일 데뷔 5개월 만에 'ITZY'는 MIDZY만 믿지! 라는 의미의 공식 팬덤명 'MIDZY'를 발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ITZY는 앞으로 'MIDZY'와 유대감을 쌓으며 독보적 존재감을 빛낼 예정이

다. 티저 공개만으로 올 여름 가요계의 돌풍을 예고한 ITZY가 이번 컴백서 선보일 신곡과 새로운 콘셉트에 가요계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eeze52@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해투4' 서민정 "미국서 영어로 화 못 내...착한 엄마로 소문"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뉴욕대 서민정이 '해피투게더4'에서 모든 끼와 흥을 대방출한다.

오는 11일 방송되는 KBS 2TV '해피투게더4'(이하 '해투4')는 '전국 짝꿍 자랑' 특집으로 연예계 내 로라하는 짝꿍들이 총출동한다. 이날 방송에는 서민정, 신지, 김종민, 지상렬, 크러쉬, 비와이가 출연해 꿀잼 입담으로 훈훈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중 '해투4'를 15년 만에 찾아온 서민정의 출연이 눈에 띈다. 지난 2007년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아온 서민정이 오랜만에 '해투4' 녹화장을 찾은 것. '해투4' 측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변함없는 파당 매력으로 등장, 모두를 놀라게 한 서민정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해투'라며 대활약을 예고했다.

seunga@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your home!
Please call us for your major and mid-size renovation and new build projects.

otk212@gmail.com 617.620.8242

No handyman jobs, please.

© 2019 OTK DeCon Group

신영의 **세상 스케치**

703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메인의 'Samoset Resort' <부부골프> 여행을 다녀와서...

참으로 오랜만의 우리 부부가 함께한 여행이었다. 지난 6월 30일(일)부터 7월 2일(화)까지 메인의 'Samoset Resort'에 남편 친구커플들과 <부부골프> 여행을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자들끼리도 서로 잘 아는 친구들이라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었다. 집에서 3시간 남짓 가셔야 도착하게 되었다. 다른 커플들은 10여년 전 'Samoset Resort'에 한두번씩 다녀간 곳이라고 했다. 우리 부부는 이곳을 처음이었다. 약속 시간이 되니 부부들이 한돌 도착했다. 도착해 둘러보니 저 멀리 수평선의 바다가 보였다.

10년 전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여행은 참 많이 다녔는데 남편이랑 함께했던 여행의 기억이 별로 없다. 그저 형님댁에 갈 때나 시댁 행사가 있을 때 함께했던 기억뿐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재미있게 보냈다고 생각하면서 왠지 짝 차지 않은 이 느낌은 무엇일까. 이번 여행을 통해 그동안 혼자 했던 여행이 즐거웠지만,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았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든 것이다. 남편은 남편대로 친구들과 골프여행을 빠지지 않고 해마다 다녀왔다. 그

래서 남편이 일 년에 한번인 골프 여행을 준비하며 즐거워하면 바로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오십 중반을 올라 육십을 바라보는 이 나이 되니 골프 라운딩을 마치고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그것은 각자 정마다 건강도 걱정해야 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와이프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남편 이야기와 함께 남편을 알뜰히 챙기는 와이프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래 바로 저런 모습이 우리 나이쯤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일 거란 생각을 해봤다.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내 남편의 어디쯤에서 있는 것일까.

2019년 올해는 유독 여행이 많은 해라는 생각이다. 1월에는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시부모님께서 다녀가시고 2월에는 과테말라에 일주일 선교여행을 다녀왔고 3월에는 그랜드캐니언 하이킹을 다녀왔으며 4월 말에는 2주 동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7월 초에 메인의 <부부골프> 여행을 2박 3일 다녀왔고, 큰

너석이 6월에 와싱턴 디시로 로펌을 옮겨 7월 말에는 운전으로 다녀올 계획이다. 또, 8월에는 시댁 가족들 모임으로 누나(시누이)가 사는 프랑스에서 시부모님과 형남네 내외 그리고 우리 부부가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10월에는 내 강의 일정과 함께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간다. 지나간 시간들을 챙겨볼 겨를없이 그렇게 말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부 여행을 가까운 곳 국내에도 많은데 멀리 국외를 많이 생각했다. 우리 나이쯤에는 이제 부부가 함께 여행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한 이틀 여행하다 보면 말다툼이 시발점이 되어 여행을 망칠 때가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적어도 은퇴를 한 후에는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때를 위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연습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여행에서 함께했던 부부들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남편과 아내를 서로 존중하고 챙겨주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여럿이 모이는 곳에서 민망할 정도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챙겨줘야나도 그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평생을 서로 기대며 살면서 추울 때는 서로 부둥켜 안아주다가 무더운 날에는 뜨거워 흘쩍 밀어냈던 일은 없었는지 잠시 생각을 해 본다. 서로가 서로의 그늘이 될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 과란 하늘 아래 잎이 푸르른 나무로서 있으면 좋겠다.

남편과 둘이 메인의 'Samoset Resort' <부부골프> 여행을 위해 집에서 운전으로 3시간 30분 정도 왕복 약 7시간을 오가면서 그 시간마저도 행복했다. 세 아이가 어려서는 가족 여행을 많이 했었다. 디즈니 월드에도 몇 번이나 가고, 크르즈도 여러 번 타고, 가까운 케일 캣과 메인도 몇 차례씩 다녀왔던 기억이다. 오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여행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다. 이제는 훌쩍 커버린 아이들의 추억을 함께 퍼즐조각 맞추듯 그렇게 둘이서 주고받으며 함께 행복해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훌쩍 집에 도착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공동경비구역



김화욱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오기택 노래, 비내리는 판문점)

공식명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이란다. 줄여서 판문점이라 한다고 했다. 십수년 전이다. 판문점 사진 한 장을 봤다. 북한병사를 북측에 인도하는 사진이었다. 병사는 동해에서 표류했던 모양이다. 그의 희망대로 북측으로 송환되었다. 사진을 보며 피식 웃은 기억이다. 미군병들 사이에 낀 북한 병사가 옛뎬 보였기 때문이다. 아직 소년임이 틀림없는데, 키 차이가 너무 컸다. 어른들 사이에 낀 아이처럼 보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이북 지도자를 만났다. 판문점에서 이다. 나란히 경계선을 넘어섰고, 재 월경越境하여 한국 대통령과도 만났다. 지도자 셋

이 서로 인사하는 사진도 곁들여졌다. 자연스럽게 각측 경호인력이 주위를 감찰다. 경호는 당연한 일인데 어느쪽을 경호하는건지 나는 분간할 수 없었다. 모두 검은 양복에 흰찰한 청년들이었기 때문이다.

만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볼 적이다. 어느 경호원이 다른 경호원의 어깨를 톡치는게 크게 잡혔다. 경호원은 돌아 보면서 '오~' 하고 놀라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얇다만 반가운 미소도 순간 얼굴에 번졌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것도 스쳤다. 남북 경호원들인데 다시 만났던 거다. 삼엄한 경호군무중이지만 무척 반가웠던 모양이다. 피차 여러번 만나고 스치는 처지였을터. 게다가 동종업계 종사자들이 아닌가 말이다. 하긴 남

과 북 병사들이 초코파이를 나누어 먹는 영화도 있다. 한국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였다. 설마 그런가 했는데, 실제 그랬다고도 했다.

자잘한 뒷이야기도 따르다. 독자나 시청자들은 궁금해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만찬엔 누가 초대되었는지, 식탁엔 무슨 음식이 올랐는지 등 등 말이다. 트럼프대통령의 이번 한국방문은 밤만 먹고 헤어진건 아닐게다. 일회성 이벤트는 아닐꺼라는 말이다. 가요 판문점연가戀歌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때 송환된 병사가 장가는 갔는가?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누가 7:8)

고향무정이란 옛가요가 있다. '구름도 울고넘는... 저 산아래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쿵짜자 쿵짜. 오기택 가수가 불렀다. 그이의 다른 노래도 있다. 비내리는 판문점. 자주 들던 가요는 아닌데, 제목이며 가사는 을씨년스럽다.

원한 서린 휴전선에 밤은 깊는데 가신 님의 눈물이나 비가 내린다 불켜진 병사兵舍에는 고향꿈도 서러운 밤 가로 막힌 철조망엔 구름만이 넘는다 아! 판문점 비 내리는 판문점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전상품 무약정

\$39.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忝 (민·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They worship me in vain; their teachings are but rules taught by men.' - 마가복음 7:6, 7.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문재인 케어(Care: 건강보험)에 대한 연례 보고를 하자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는 "문재인 케어(Care: 건강보험)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Poor: 빈궁)가 우려된다" 고 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 3,600만명(연인원)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감해택을 봤다는 것.

그런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열린 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며 "대통령 참석 행사까지 열어서 성과를 언급하고,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 보장률을 임기내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 며 "그 재원 조달 방안에는 모두 침묵했었다" 고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그간 흑자이던 누적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다" 며 "올해 건보료를 3.49% 인상했는데, 건강보험 적자(赤字)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적립금은 반토막 날 것" 이며 "민약문재인 대통령 장담처럼

건강보험료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리면 2030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 고

황 대표는 "적립금을 인상하든 국고 지원을 늘리든 결국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문제여서 결국 "문 푸어(Moon Poor) 정책" 이라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보험에 대해 "무능한 좌파복지정책의 민낯" 이라며 "책임은 지지않고 미래 재원을 지금 쓰겠다고 떠드는 '떡튀 케어' " 라고

나 원내대표는 "이미 문재인 케어(Care)로 건강보험료 폭등이 현실화되고 재원(財源)마저 고갈되고 있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편식성 정치행보' 가 걱정된다" 고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마구 털어 쓰지 못하도록 적립금 사용시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만들고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 주요 대기업 총수 등 경제계 인사들을 초청·간담회 연 것을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

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 고 뜻을 밝혔다.

10일 오후 2시경 환자들로 붐비는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 앞전광판에 '접수부터 응급진료까지 기다리는 시간 20시간 25분' 이라는 숫자가 떴다. 이걸 평균일뿐 "응급실에서 기다린지 24시간이 넘었다" 는 이도 있었다.

서울 대형 5대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 병원.

'문재인 케어' 로 건강보험 대상 항목이 대폭 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 5대병원 응급환자가 2017년 23만 6000명에서 지난해 26만5000명으로 1년 새 3만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김명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로 MRI 등 건보 대상항목이 늘고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데다 과거 특진비라 불리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면서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진 것과 무관치 않다" 고 했다.

비용부담이 적으니 급환이 아닌데도 무조건 대형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그 중 상당수가 외래예약 순서를 기다리는

대신 응급실을 통해 바로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으려드는 것이다.

대형 5병원 응급센터 P 교수는 "병증과 중증이 뒤섞여서 제대로 처치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 며 "정부가 중증 아니면 대형 병원 응급센터에 못오게 하는 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忝은 두가지 뜻을 지녔다. 忝①:自強 자강: 마음다잡을 민 ②難也난야: 어수선한 문. 글 자체는 文·心 = 文(문)과 마음(心:心)이 같이 묶여있어서 글을 아는 또는 문자(文字)적 지식으로 통일된 글자로 보이나 따지고 보면 글(文)은 머리(頭), 마음(心)은 머리에서 생각되기 보다 깊은 생각이 머리에서 정리되서 마음의 행선(行先)을 보고 끌려가게 한다.

직설적으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마음(忝 = 文·心)을 누가 알고 있을까? 일본, 중국 또는 유럽 어느 나라와 동행(同行)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의 김정은과 합심(合心)도 정확하지 않아 김정은은 슬하의 미국(美國) 담당 국장으로부터 미국(美國)·북한(北韓) 외교에도 "물러서라!" 는 망신을 당했으니...

忝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로 돌릴 수밖에...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세후법인
호연회계법인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 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보스톤 전망대

〈각배와 소그드 사람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각배(角杯)는 짐승뿔로 만든 빨잔으로 그리스에서는 Rhyton이라고 부른다. 각배는 BC 4세기 이전에도 히랍과 스키타이를 비롯한 유목민들이 쓰던 술잔이었다. 이것을 그리스인들이 신화로 승격 시킴으로 로마에 전승됨은 물론이고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공예품으로도 선호하게 되었다. 그리스 신화에서 뿔은 풍요를 상징한다. 그래서 각배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풍요의 잔으로 숭상하였던 것이다.

이는 BC 330~323,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을 계기로 헬레니즘 문화의 동진 선상에서 한반도에서도 각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상한 점은 신라, 가야에서는 일절 볼 수 없고 중국에서도 별반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이미 석탈해 왕때(AD 57~80) 각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 내용이 이렇다. 어느날 석탈해는 동악(東岳)에 올라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심부름꾼을 시켜 물을 떠오게 했다. 심부름꾼이 물

을 떠가지고 오다가 제가 먼저 마시고는 탈해에게 드리려 했다. 그러나 각배 한쪽이 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보고 탈해가 심부름꾼을 꾸짖자, 그는 맹세하기를 앞으로는 감히 먼저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비로서 각배가 입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각배는 나라마다 사용하는 목적을 달리하고 있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대관식때 각배에 기름을 담아 왕의 머리에 뿌리는 의식을 했었고, 스키타이에서는 전쟁때 전우들의 피를 섞은 술을 각배에 담아 마시며 병사들의 전투 의욕을 올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위지 동이전에 행상(行觴)이라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는 각배 한개를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돌려가며 술을 마시는 풍속이었다고 한다.

1973년 부산 북천동 7호분에서 두점의 말머리 모양의 마두식 각배(馬頭飾角杯)가 발굴되었다(보물 598호).

점토를 빚어 만든 5세기경의 각배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란의 북쪽에 있는 투르



기마 인물형 토기 각배(국보 275호)

크 메니스탄의 "니사"에도 거의 똑같은 모양의 마두식 각배가 있다는 것이다. 왜 똑같은 모양의 각배가 부산 북천동과 니사에서 발견되었을까? 이것은 스텝지역의 기마민족간의 접촉과 민족 이동과정에서 비슷한 모양의 각배가 전파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마두식 모양의 빨잔은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등지의 빨잔에서 그 원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BC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을 계기로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오리엔트 문화가 만나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하였다.

헬레니즘 문화의 발상지는 유럽의 어느 곳이 아니고 서아시아와 중앙 아시아 지역인 파르티아에서 시작되었다(BC242~AD226).

파르티아는 이란계 유목민들이 세운 나라로 중국 이름으로는 안식(安息)국이라고 불렀다.

예전 파르티아의 수도였던 "니사"에는 헬레니즘 문화의 상징이었던 그리스의 유리병, 은동제 에로스상, 그리스 아테나상, 그리고 40여점의 각배가 투르크 메니스탄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니사"의 마두식 각배도 이곳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 각배들은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유물로 신라, 가야, 일본에까지 전해진 문명 교류의 사례가 되는 대표적인 유물인 것이다.

그들은 인도의 후추, 로마와 그리스의 유리제품, 페르시아의 은그릇, 그리고 가장 고가품인 중국의 비단을 독점하였다. 당시에 중국 비단의 무게와 은의 무게가 똑같은 가격이었다고 한다.

전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꼽으려면 의례 중국사람을 일컫지만 장사에 도가 트인 사람들은 이란계 파르티아 사람들로 이들을 소그드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중국사람들이 세로짜기 기법으로 비단을 짜는 것을 알고 가로짜기의 대담한 문양을 넣어 비단을 만들었다. 경주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입수사자공작문석(立樹獅子孔雀文石) 역시 원 주위에 연주문을 그리고 나무와 공작 두마리를 그리는 소그드인들이 자주 쓰는 기법이었다.

대당 서역기에 현장 법사가 이르기를 소그드 사람중 절반은 상인들이었다고 한다.

경주 원성왕릉과 흥덕왕릉에는 눈이 깊고, 코가 크고, 수염이 많은 무인석상이 보이는데 오른쪽 뒤편 허리에 찬 주머니는 소그드인처럼 유목민들이 사용했다고 한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처용가의 주인공이 조선시대때 간행된 음악이론서 악학 궤범에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역시 소그드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소그드인들이 역사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안록사의 난이었다.

안록신은 소그드인 아버지와 돌궐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상인이었다. 그는 당나라 양귀비와 친한 사이였는데 안록신의 난이 실패한 뒤에 중국에서 대대적인 소그드인 숙청이 감행되어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부산 북천동의 마두식 각배는 소그드인들이 활약할때 사용한 물건이었다고 한다.



북천동 마두식 각배 (보물598호)



투르크 메니스탄 니사의 마두식 각배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한인업소록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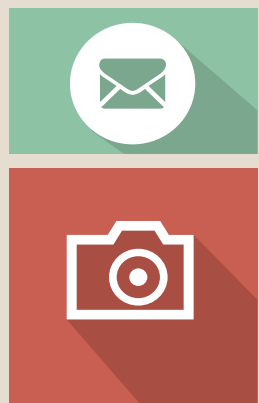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을 원하시면 :
upsorok@bostonkorea.com으로
이메일하세요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보스톤 남쪽 성업 중인 세탁소 공장 + 셔츠기계, 연매상 \$200,000, 좋은 위치. 꾸준한 단골손님 확보, 소유자 은퇴, 건물 매매 가능 (단독 건물)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렉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셔츠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미국 식당(한인 셀러), 아침 + 점심 단독 건물 (많은 주차장), 6일 오픈 건물 + 식당 매매, \$3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셔츠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런드로멧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보스톤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프래밍햄 지역: 런드로멧,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KBS MBC SBS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전상품 무약정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